

“세월호 진상규명, 호남불교계 나서달라”

세월호 유가족 불교계에 호소, 호남불교계 국민운동 전개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세월호 가족버스가 7월 6일 전주중교계를 찾아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불자 300여명은 6일 참중은우리집(주지 회일) 등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지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세월호 영상보기와 함께 주지 회일 스님의 설법,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경과 활동계획,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가 진행됐다.

회일 스님은 “우리의 침묵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내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 조현문 씨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넘어 이 땅에서 이번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생업을 포기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중은우리집에 이어 바울교회, 우아성당 등의 종교단체를 방문했다. 또 7일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 시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불교계는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7일 전개했다.

김제 금산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는 7월 7일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유종근 前 전북지사, 서경석 목사, 원팔연 전주 바울교회목사 등 종교지도자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이날 “이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교인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도민이 힘을 모아 국가와 사회의 부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적으로 계율과 수행을 통해 도덕적 생활을 함으로써



호남불교계는 7월 7일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개회식 장면.

이런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공동체들이 합심해 이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사고는 책임윤리의 부재와 도덕성의 실종 등 겹겹이 누적된 총체적 난맥상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무관심, 무책임, 부주의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전폭적인 참여없이 국가개조는 불가능하다”며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질망과 분노를 국가재정조 에너지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및 국가개혁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를 권고했다. 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국민 반성운동 전개 △사회지도층, 기독교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부정부패 척결 △정치권에 대한 국민감시 운동 전개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운동 전개 △통일기반운동 확산 등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제1기 화엄선재학당 수료식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는 7월 6일 각 황전에서 제1기 화엄선재학당 수료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수강생 50명은 수계와 불명을 받고 불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화엄선재학당은 인근 농촌마을인 구례군민을 위한 불교포교 과정으로 화엄사를 찾는 신도들의 기본교육과 지역민들에 대한 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16일 개강하여 3개월간 불교기초교리, 불교문화, 불교의식 등 수업을 진행했다.

수계식에서 주지 영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의 인연을 바탕으로 수계동참제자

들은 자신의 수행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2기 화엄선재학당은 9월 2일 개강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1일출가 하계수련회

지역불교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1일출가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7월 5일 김제 청운사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오리엔테이션, 사찰안내, 율령, 자연음차 시음, 좌선, 전북불교대학의 법회와 미래를 위한 108배 3차례, 걸기 백련명상, 열린마당 수계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40여명의 학인이 동참한 이날 수련회에서 학장 도원 스님은 “일일출가를 통해 수행정진하는 불자상을 확립하기 바란다”며

“1박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속의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단 이주민 노동자 위한 법회 ‘눈길’

스리랑카 노동자들, 공단 휴게실에서 스리랑카 전통법회 열어



전주3공단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의 사찰에서 자국의 스님을 초청해 자국 전통법회를 개최했다. 전북 완주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노동자 70여명은 7월 6일 광주 무각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리랑카 디사스님을 초청해 승보공양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여법한 법당도 갖추지 못한 채 급조한 불단과 간단한 공양물만을 준비했지만 지극한 심신으로 라산다 모친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특별히 초청된 모국의 스님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한편 포처럼만에 외국에서 스리랑카 고유의 불교 의식으로 법회를 봉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디사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외롭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설했다.

정용기 포교사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민 위한 나눔행사 높은 호응 얻어

송광종합복지관 7월 9일 ‘개관 21주년 나눔행사’ 개최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설립 21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잔치를 벌였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복지관 중 하나이다.

지난 7월 9일 광산중학교 체육관에는 광산우산동, 월곡2동 주민 500여 명 동참한 가운데 ‘지역주민 한마음·한가족·한마당 나눔문화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나눔잔치에는 김늘이, 나눔장터, 초청공연을 비롯해 건강한 장수상, 아름다운 부부상, 착한 효도상, 감사패 증정, 저녁식사, 보물찾기, 문화공연 및 노래장기자

랑,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마음·한가족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 힘차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밝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행배 광산구청장, 김동근 구의원, 김광관 구의원, 건강사랑봉사단, 길상사 봉사단, 31사단 윤진영 대령 등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남 고흥지역 불교문화재 한눈에

고흥의 봉래사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유물, 봉래사 신중명화(전남유형문화재 제269)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문화재와 고흥지역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봉래사 관음보살상과 복장유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인문학코드 프로젝트로서 ‘남도문화 바로알기’ 특별전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흥군과 공동으로 《남도문화전 V-고흥》특별전을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 고흥지역 불교문화는 고려 초기에 형성되어 17~19세기에 가

장 성행했던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전시에는 고흥의 주요 사찰 소장 문화재가 전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강대 교육방송국, 광주 환경UCC전 대상

금강대(총장 정병조) 교육방송국(GBS) 학생들이 광주시가 주최한 ‘제7회 즐거운 환경UCC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과 환경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영상에 사용된 노래(피리부는 소년)의 저작권 문제의 위기가 있었지만, 저작권자의 도움으로 원만한 해결이 돼 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을 위해 교육방송국 학생들은 3명씩 두 팀으로 구성, 2개 작품의 출품을 목표로 매일 저녁 6명이 함께 1~2시간의 아이디어 회의 등을 가져왔다. 대상을 수상한 ‘피리부는 소년’ 팀은

금강대 교육방송국은 개교 이래 해마다 방송제를 통해 학교 캠페인 동영상 및 CF 등 학교 주변의 모든 소재를 주제로 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흥미와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접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회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